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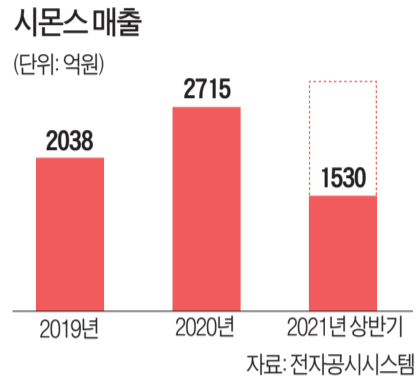
# 시몬스, 렌털시장에 '맞불' 무이자 할부 전략 통했다

시몬스페이 상반기 400억 결제 36개월까지 할부이자 전액 면제 납부금액 따져보면 렌털보다 저렴 안정호 사장 '프리미엄 품질' 전략 올해 매출 3000억 처음 넘을 듯

프리미엄 침대 제조사 시몬스가 렌털시장의 대항마로 운영하는 장기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시몬스페이 결제 금액이 올해 상반기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이자 등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내세운 시몬스 특유의 프리미엄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프리미엄 가구를 선호하는 소비자층까지 두터워지면서 올해 시몬스는 사상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몬스가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시몬스페이'로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있다. 경기 이전에 마련한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이다. 유통마진에 매달리기보다 차별화한 품질로 승부를 보겠다는 안 사장의 프리미엄 사업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시몬스는 포스코가 제조한 경강선재(침대 스프링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이탈리아 수입 특수 포켓 부직포, 벨기에 수입 원단 등 최상급 소재로만 침대를 만들고 있다. 친환경 및 리돈 안전제품 인증에 이어 국내 업계에선 유일하게 난연 매트리스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도 알려졌다. 시몬스는 지난해부터 그린드조선 부산, 롯데시그니얼 부산, 그린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등 신규 개점하거나 재단장한 전국 9개 특급호텔에 침대를 공급했다. 전국 5·6성급 호텔 객실의 90%에 시몬스 침대가 들어 있다.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올해 개점한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롯데백화점 동탄점, 대전신세계 등 렌드마크 성격의 대형 쇼핑몰에서 연이어 개점 초반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시몬스의 상반기 매출은 15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가구·인테리어 시장 성장세와 함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19년 최초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인 올해 선 가치로 여기는 안정호 시몬스 사장(사진)의 경영철학이 밑바탕이 됐다"는 후문

민경진 기자

## 메이팜소프트,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처리 전문기업 메이팜소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문기업 케이에스아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주한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안전성 확보와 최신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메이팜소프트와 케이에스아이

이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통계 및 관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기관 최초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해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 서비스 확대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운정 메이팜소프트 대표는 "이번 사업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AI 생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가상도. 메이팜소프트 제공

태계 창출이 가능하며, 국가 뉴딜 10대 대표 과제인 스마트모빌리티의 기술발전과 트렌드를 반영한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 코엔텍 "소각열 스팀으로 年 250억 수익"

지난 16일 찾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 중앙 제어실의 원격제어 장치를 통해 산업폐기물을 크레인 집게로 집어 파쇄기에 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제어실 모니터에는 잘게 부서진 폐기물이 혼합 등 전처리 공정을 거쳐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장면이 실시간 중계됐다. 코엔텍이 보유한 소각로 두 기의 하루 소각 용량은 463t. 단일 사업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연 18만 5000t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

코엔텍은 1993년 울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 대기업 등 85개 사업체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무기성 산업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완전 연소하고, 남은 소각재는 사업장 내 매립지에 묻어 관리하고 있다. 매립지 1공구(111만㎡)는 2010년 매립 용량을 다 채우고 사후 관리(30년)가 이뤄지고 있다. 23공구(209만㎡)는 사용 중이고, 120만㎡ 규모의 4공구를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일 코엔텍 공장장은 "소각 전문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대기오염물질 정화"라고 말했다. 코엔텍은 소각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모든 시설과 기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각 전문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

85개 기업이 공동 설립한 울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매출 40% 스팀 판매로 올려

용 기준은 50ppm(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질소산화물 분자 50개)이다. 석유 정제품 가열시설(130ppm), 시멘트 소성로(270ppm) 등 전통적인 굴뚝산업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코엔텍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촉매 환원 탈질시설(SNCR)을 운영하고 있다. 고농도 수산화칼슘액체를 분사해 황산화물과 염화수소를 중화하는 반건식 반응탑 등 6단계에 걸친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구축했다.

소각 과정과 유해물질 농도는 코엔텍 중앙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에서도 현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엔텍은 전체 매출의 약 40%를 폐기물 소각 열로 생산한 스팀

(증기)으로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1t을 소각 처리하면 약 5t의 고압 스팀을 생산할 수 있다. 고압 스팀은 정유공장을 비롯해 석유화학·제지·섬유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포산업단 인근의 SK에너지, SK피아 이씨글로벌 등에 74만t의 스팀을 판매했다. 지난해 스팀으로 거둔 수익만 250억원에 이른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 전문시설은 2019년 약 582만Gcal의 스팀을 생산했다. 벅커C유 약 55만t이 될 수 있는 열량이다. 이만석 코엔텍 대표(사진)는 "소각 전문시설의 소각열 에너지 생산으로 굴뚝산업의 탄소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체계적 패러다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부합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각열 에너지 관련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 번 소각 전문시설에 들어온 폐토사 및 불연물은 분리 배출이 금지된 탓에 그대로 소각로에서 투입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방치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화된 에너지로 법제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 "1분 만에 온라인 쇼핑 데이터 1만건 수집"



데이터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웹크롤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웹크롤링이란 검색엔진 로봇을 통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말한다. 온라인쇼핑물 가격 비교와 소셜미디어에 나온 고객 반응 등을 분석할 때 웹크롤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 웹크롤링 시장 규모는 8조 4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전문 개발자(프로그래머)였던 김재훈 유엔솔루션 대표(사진)는 소수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웹크롤링 기술'을 대중화해 야겠다는 생각에 2018년 회사를 창업했다. 국내에 많은 웹크롤링업체가 있지만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대중에게 웹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이 회사가 유일하다.

보통 일반 기업이 웹크롤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문 개발자를 동원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웹크롤링 서비스 '스파이더깅'을 활용하면 코딩을 배울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몇 초 만에 전 세계 데이터



국내 유일 클라우드 웹크롤링 유엔솔루션, 고객분석에 활용 글로벌 대기업 수주 잇따라

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구독형 요금제(월 15만~50만원)로 기존 프로그램 제작·설치 비용(400만~500만원)에 비해 가성비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정보 기술(IT) 리서치회사인 가트너는 지난 6월 "미래에 꼭 필요한 웹크롤링 기술을 가장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이 회사가 기업 고객에게 맞게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도 인기다. 최근 한 글로벌 대형 식품업체는 유엔솔루션에 의뢰해

국내 배달앱에 나온 18만 개 음식점의 메뉴·매장 정보를 웹크롤링해 자사 제품의 마케팅 정보로 활용했다. 당초 세계 유수의 웹크롤링업체에 의뢰해도 불가능한 작업이었지만 유엔솔루션의 독보적인 모바일 정보 수집 기술로 가능했다. 국내 한 대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세계 40~50개 항공사, 200~300개 노선의 항공권을 시가·좌석·신용카드 할인별로 최저가를 실시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엔솔루션을 통해 구축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데이터 수집량과 속도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웹사이트 유형과 구조를 학습해 보통 데이터 1만 건 수집에 1분도 안 걸린다"며 "자체 조사 결과 미국 최대 웹크롤링업체보다 속도 면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내년 매출 목표를 올해의 6배 수준인 수십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 KMAC,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온 혁신 파트너입니다

기업가치혁신 | 공공혁신 | 진단평가 | 리서치 | 디지털·데이터 | 에너지·환경 | ESG | 대학사업 | 스마트교육 | 글로벌교육 | 미디어